

# 책 안 읽는 사회 ... 가구당 구입비 역대 최저

지난해 월 1만5000원 지출

경기 침체·스마트폰 영향

6년 연속 ↓ ... 소득·교육 따라 큰 격차

문화 생태계를 이루는 근간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은 읽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지속되는 존재다.

현대소설의 창시자이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는 “유년기의 나날 가운데 좋아하는 책 한권과 함께 보낸 날만큼 충만하게 살아낸 시간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독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영향으로 가구당 책 구매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구당 책 구매 비용은 월 평균 1만5000원이었다.

2016년 신간 단행본 정가(교보문고 납품도서 기준)가 1만8108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한 달에 책 한권을 사지 않는 셈이다. 점차 책을 읽지 않는 풍조로 서적 구매 비용이 6년째 감소 추세다.

4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는 한 달 동안 책을 사는 데 1만5335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 1만6623원보다 7.7% 줄어든 금액이다. 2012년 처음으로 2만원 아래(1만9026원)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에는 1만5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책 구매 지출액은 소득에 따른 격차의 영향도 컸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4698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2만6928원을 썼는데 약 5.7배 차이가 났다. 전년인 2015년의 5.2배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책을 읽지 않는 풍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 <광주일보 DB>

또한 가구주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책 구입 비용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가구주가 중졸 이하 가구는 책을 구매하는데 월평균 2790원을 썼다. 고졸 가구는 1만2384원이었지만,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2만3117원을 지출했다. 책을 사는데 교육 정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다.

또한 책 구매에 소극적인 이유는 소득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작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 폭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 소득의 역대 최대폭 감소는 소득에 따른 책 구매 지출액 차이를 설명해준다. 작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2015년보다 5.6%

감소해, 소득 작성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다른 무엇보다 책을 읽지 않는 풍조의 만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부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의 비율이 65.3%에 그쳤다. 이는 1994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로 포털 사이트 영향력 확대, 스마트폰 매개로 소비되는 경향 등이 더해져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화작가인 이성자 광주교대 외래교수는 “수업시간에 보면 학생들 상당수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을 구매하는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립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 원래 일정대로 다음달 7~8일 공연

예술감독 임기 만료·계약 절차 등

광주문예회관 재검토 논란 일단락

<속보>공연 여부가 불투명했던 광주시립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광주문예회관은 지난 3일 “시립발레단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준비중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래 일정대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는 4월 7~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1에서 공연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공연을 추진했던 발레단 예술감독 임기가 끝난 점 등을 이유로 광주문예회관이 공연 여부를 재검토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회관측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연의 책임 문제, 계약 절차 등을 문제로 들어 공연에 난색을 표해왔었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해말부터 전당측과 추진해온 사업으로 캐스팅, 연습 등이 진행되고 홍보가 진행된 상황에서 예술감독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 때문

에 공연을 중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모나코왕립발레학교, 프랑크푸르트발레단을 거쳐 독일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허용순 안무가를 초빙해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다. 허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광주에 머물며 오디션을 진행하고 단원들을 대상으로 클래스와 함께 안무 지도 등을 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 구윤지와 보그단 플로피누, 발레리나 김주원과 윤전일을 주역으로 더블 캐스팅돼 무대에 선다.

허씨는 오는 15일 광주에 들어와 다시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작품을 준비하게 되며 당분간은 지도위원이 연습을 진행한다.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이번 작품이 전당과의 협업 작업으로 준비가 진행된 상황이라 우여곡절 끝에 공연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인 예술감독 선임 때까지 대행을 맡게 될 단무장을 중심으로 성실히 작품을 준비하고 전당측, 안무자 등과 계약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예창작반 수강생 모집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는 2017년도 문예창작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5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동구 대인동 신보빌딩(기아자동차 3층)에서 매주 수요일(3시~5시)에 열리는 이번 창작교실은 모두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강사는 고 문병란(1934~2015) 시인이 조 선대에서 퇴임한 이후 만든 연구소로 시장작과 연구, 학술활동을 전개해온 문인단체다. 문병란 시인을 기리는 추모기념사업과 5·18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동안 100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문단에 등단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허 시인은 순천 출신으로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비 잡지 그친 뒤’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문의 062-234-8158, 이메일 mondieu54@naver.com.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앵글에 담긴 이방인의 정체성

광주 출신 송원일 작가 사진전

12일까지 국윤미술관서

10여년 동안 아시아 각국을 여행하며 낯설고도 익숙한 모습을 렌즈에 담은 송원일 사진작가가 12일까지 국윤미술관에서 ‘Uprooted’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송작가가 처음으로 고향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최근작 3점을 포함, 모두 34점을 출품한다.

송씨는 이력이 특별하다. 10여년 전까지 대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상명하복, 약육강식 문화에 환멸을 느껴 사직서를 낸 후 카메라와 사진 책 몇 권을 들고 태

국, 인도를 여행한다.

전시된 사진에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에 순응하며 적당히 살아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을 담았다. 멋진 풍경이나 이색적인 장면 대신 허물어져 가는 계단, 지친 청소노동자, 해변에서 뛰노는 강아지, 빌딩숲, 슈퍼마켓 속 가지런하게 쌓인 참치캔 등을 전시한다. 작가는 오는 6월에는 서울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 ‘시마이 Apoptosis’를 주제로 국내에서 촬영한 흑백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씨는 광주이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Uninvited’(2015), ‘선데이 홍콩’(2016), ‘흐르는 뿌리’(2016) 등 개인전 3회를 열었다. 문의 062-232-7335. /김용희기자 kimyh@



‘Uprooted #06-Yangon’

## 獨 페터 폰 빈하르트 교수 초청 정기 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회장 김정아 광주대 교수)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특히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페터 폰 빈하르트 교수를 초청해 진행, 눈길을 끈다.

연주회에서는 웅장한 관현악곡 등을 22명의 회원이 두 대의 피아노에서 들려주는 다양한 앙상블로 만날 수 있다.

김현정·김준현·성지영·송지영씨 4명이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베버의 ‘무도예의 권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K.545’와 ‘세라타네 2번 C단조 K.388’, 샤브리에르의 ‘에스파니아 랩소디’ 등을 2명, 3명, 4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 장정욱·이주영·임인수·김혜진·김형미·이윤정·양운



김준현



빈하르트 교수

정·이정재·박안나·이은경·김자영·장지민·조혜원·최연주·임리라·이슬씨가 출연한다.

페터 폰 빈하르트 교수는 이랑씨와 함께 홀스타의 ‘행성 작품 32’를 들려준다.

빈하르트 교수는 지난 2~5일까지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초청으로 광주대 음악학과 연주회에서 초등학교부터 박사 과정 학생까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학 뒤 공영주차장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